

대학평가인정제의 실시와 대학도서관 자원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versity Accreditation Program and the Changes in the University Library Resources

차미경(Mikyeong Cha)*

목 차

- | | |
|---------------------|------------------------------|
| 1 서 론 | 2.3 대학도서관평가 |
| 1.1 연구의 목적 | 3 대학종합평가인정대학 도서관의 자원 변화 |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 대학도서관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 |
| 2 대학평가인정제와 대학도서관평가 | 3.2 대학종합평가인정대학 도서관의
자원 변화 |
| 2.1 대학평가인정제 | 4 결론 및 제언 |
| 2.2 대학평가인정과 대학도서관기준 | |

초 록

본 연구는 대학평가인정과정 중 도서관 관련 영역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 제도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의 도서관의 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도서관통계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도서관 평가항목에 포함된 열람좌석수, 도서와 연속간행물 소장량 및 예산은 대학종합평가가 실시된 이후 크게 증가하였지만,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부문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도서관 평가항목과 측정방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niversity accreditation program and its effect on the resources in the accredited libraries, by using library statistics published in 1990-1999. The results indicate the accreditation may effect on the increase in library seat numbers, building spaces, library holdings, and budgets which included i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slight decrease in library personnel which is not. It suggests library professionals to be more involved in the accreditaion process to improve the present evaluation criteria and assessment methods.

키워드: 대학도서관평가, 대학도서관기준, 대학도서관, 대학평가인정제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 후 과정

■ 논문 접수일 : 2000년 5월 18일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대학평가인정제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이 제도에 의한 평가인정은 7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 금년으로 그 1차 주기를 마감한다. 전국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주관 하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평가의 결과는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일반인에게는 그 대학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로 받아들여지므로 각 대학은 우수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대학교육협의회 1997). 대학교육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인정제도의 실시결과 전반적으로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 관련항목을 포함하는 시설·설비부분에서의 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받은 대학의 도서관은 자료 및 시설의 개선으로 “질적인 향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는 평가기관의 인식일 뿐이며, 이러한 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실질적인 향상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대학도서관은 물리적인 시설과 장서 이외에도 인력, 이용자, 제공되는 봉사의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서와 시설·설비의 양적인 개선만으로 도서관 봉사가 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평가인정제의 도입 초기에 도서관 관련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다수 발표된 바 있다(최정태 1994, 백항기 1995, 서혜란 1996,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1996). 그러나 도서관 전문인의 요구가 실제 평가인정기준항목을 개선하는 데에 반영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항목의 누락이 도서관 인력구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평가인정제의 실시가 대학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내년부터 실시될 대학평가인정제 2차 주기에 앞서 도서관 관련 영역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대학평가인정과정 중 도서관 관련 영역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 제도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의 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도서관에 미친 영향은 도서관 자원, 내적 운영, 이용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자원의 양적 변화에 제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학 및 대학도서관평가인정과 관련된 개념들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하고,

둘째, 대학평가인정제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편람, 연차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대학평가인정제의 의의와 과정, 도서관 관련 항목의 의미와 평가과정 및 결과를 정리한 다음,

셋째,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지난 10년간 발행된 『한국도서관통계』를 이용하여, 1994년

부터 1998년까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들의 도서관 자원, 즉 자료, 시설 및 직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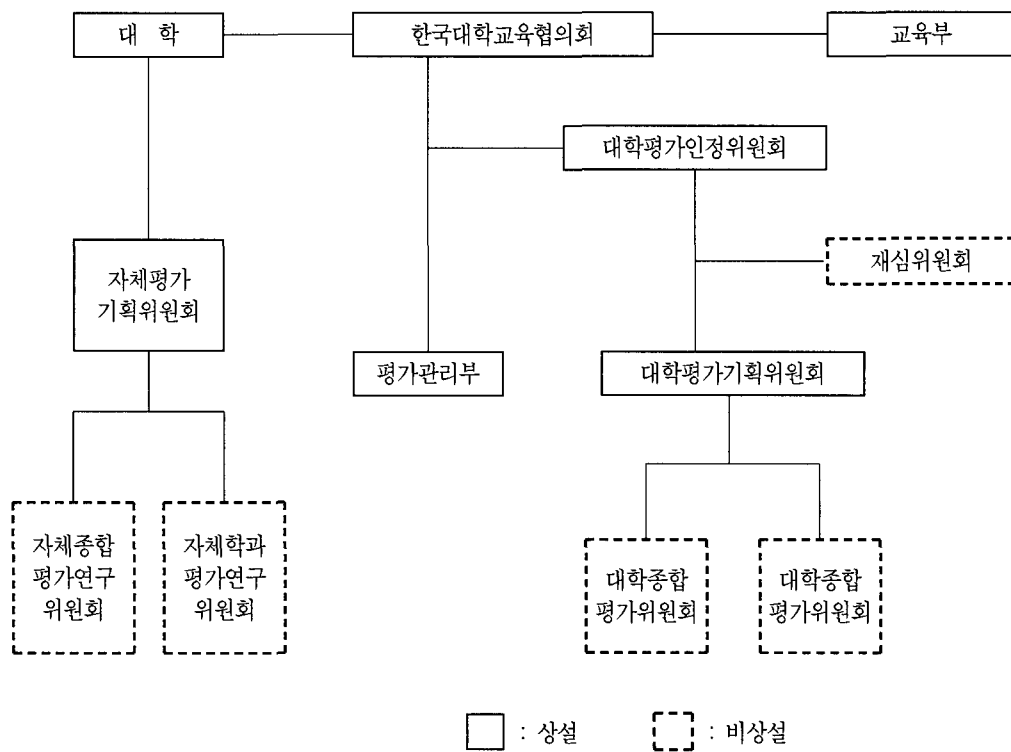
2 대학평가인정제와 대학도서관평가

2.1 대학평가인정제

대학교육에서 인정제도(accreditation)는 한 대학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동료집단으로 구성된 인정기구가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Kells 1995). 대학평가인정(기관평가, institutional accreditation)과 학과평가인정(specialized accredi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처럼 두 평가를 모두 한 평가기구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기관평가는 지역별로 학과평가는 학문영역별 평가기구에서 관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인정은 각 대학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와 인정기구에서 파견한 방문단의 실사 등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된다. 평가인정을 하는 기구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한 대학이나 학과프로그램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



〈그림 1〉 대학평가인정제의 운영조직

아보는 과정이고, 평가를 받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동료집단이 합의하여 정한 기준이 제시하는 항목들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대학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은 7년간 인정효력을 갖고 이후에 다시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대학종합평가의 내용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은 다시 2-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총 22개 부문을 포함하고, 각 부문은 다시 2-7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져 총 100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영역별, 부문별, 항목별로 가중치가 주어져 총 50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평가의 과정은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평가인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대학 측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기본으로 서면 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된다(〈그림 1〉 참조).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대학평가의 기본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 결정기구로, 5인 이내의 산업계와 사회단체 대표, 5인 이내의 대학 총장이나 대학 보직 교수, 2인 이내의 대학평가전문가, 그리고 교육부 차관, 대학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된다. 대학평가기획위원회는 평가인정 업무의 집행전략 수립, 평가결과에 대한 예비판정, 연구조사 등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10명 이내의 평가전문교수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는 않지만 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평가의 결과를 대학정책의 수립에 활용한다. 각 대학은 자체 평가연구를 수행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현지방문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협조하여, 평가인정위원회의 평가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개선방안을 수립·실천한다.

대학평가인정제의 효과에 대한 대학평가위원회(1998)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은 대학종합평가가 대학의 전반적인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교육시설의 개선에 대학간 협동이나 대학운영 효율성 향상 등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공헌을 하였다 고 평가하고 있다.

2.2 대학평가인정과 대학도서관진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에게 제공하는 대학의 필수기관이다. 따라서 대학평가인정과정에서 도서관 평가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 대부분의 지역별 대학평가인정기준과 학과평가인정 기준에서는 도서관을 독립영역으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Garten 1994, Frazer 1994, Lindaur 1998).

도서관 전문단체의 기준이 대학도서관 봉사 와 평가의 모델을 제시할 뿐 이를 강제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행정적인 수단이 없는 반면, 평가인정기준은 인정기구의 심사 과정에서 준거로 활용되고, 또한 평가인정결과가 그 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에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학도서관은 인정기준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항목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 만들어진 인정기준은 보다 직접적으로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Williams and O'Connor 1994).

평가인정제도는 우선 도서관의 예산확보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서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Garten 1994). Casserly(1987)가 인정과정에 참여한 대학도서관사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서들은 대학평가인정의 긍정적인 효과로, 1)명확하게 진술된 자체 평가보고서를 갖게 되었고, 2) 장서개발과 이용자 교육 및 자동화 등 도서관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3) 도서관의 장단점에 대한 외부인의 유용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고, 4) 도서관 직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개선된 도서관 장기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Leach(1992)는 인정을 받은 40개의 대학도서관을 무작위 선정하여 도서관의 자체 평가보고서와 도서관 통계자료 및 평가단의 보고서를 분석한 후, 이들 도서관이 인정과정을 통하여 도서관의 자원공유와 네트워킹에 특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대학평가인정이 대학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과 평가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사서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Williams and O'Connor 1994). 대학인정평가에 도서관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직협회의 대학도서관기준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학평가인정에 있어 도서관협회의 도서관기

준은 평가기준항목의 설정과 평가인정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Coleman and Jarred 1994, Frazer 1994). 우선 도서관기준은 평가인정기준항목의 설정 시 참고자료로 이용된다. Coleman과 Jarred(1994)는 미국 6개 지역의 대학평가인정기준과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의 도서관기준(Academic Library Standards)을 비교한 결과, 지역평가인정기준에서 제시하는 모든 항목이 ACRL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둘째, ACRL의 도서관기준은 평가인정기준과 비슷한 항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도서관에서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용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 시 도서관기준을 참고할 것을 인정기구에서 권장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탐방평가의 과정에서 평가위원이나 사서가 도서관기준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 대학평가인정에 도서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서가 대학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평가위원회나 방문평가위원과의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각 대학의 자체종합평가연구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직원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는 조사된 바 없으나,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의 평가위원회에는 아직 도서관 전문직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평가위원회에 도서관인들의 참여는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ff 1992).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학도서관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대학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정기준항목의 설정과 측정방법에 도서관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대학도서관평가

대학도서관평가의 동향은 자원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양적인 측정도구에서 질적인 측정도구의 이용으로 변화하여 왔다. 서혜란(1996)은 대학도서관 평가항목에 성과척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료(자료확보, 자료이용), 정보봉사(열람봉사, 참고봉사, 온라인 정보검색, 직원, 상호대차), 이용지원(이용교육, 시설

설비(공간계획, 건물, 기기), 경영(도서관계획, 예산, 조직, 인사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질적 평가를 위하여, 장혜란(1997)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도서관평가영역을 7개 부문(이용일반, 장서이용, 상호대차, 자료접근, 정보봉사, 이용자교육, 시설 및 설비)으로 나누고 25가지 평가지표와 평가척도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도서관 성과지수 측정을 위한 국제표

〈표 1〉 대학도서관 평가영역 비교

ISO(1998)	서혜란(1996)	장혜란(1996)	미국인정기준 (Garten 1994)	미국인정기준 (Lindaur 1998)	ACRL(2000)
이용자 만족			평가 (evaluation and outcome assessment)	평가 (outcome assessment)	
자료의 제공 기술봉사	자료확보		장서개발 교과과정지원을 위한 자원	정보접근성과 가 용성 장서 및 교육자원	자원
자료의 출납과 대출	자료이용	장서이용		정보이용	
참고봉사와 정보검색	열람봉사 참고봉사 온라인정보검색 이용자교육	이용일반 정보봉사 자료접근 이용자교육	원격봉사 자료접근 정보능력및 이용자교육	정보능력	봉사 이용자교육
도서관 상호대차	상호대차	상호대차	도서관협력 타기관과의 협력	교수및 대학직원 과의 협력	커뮤니케이션 과의 협력
도서관 설비	공간계획 건물 기기	시설 및 설비	설비 시청각매체 전산화	정보기술	시설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도서관계획 예산 조직 인사관리				예산 경영

준(ISO 11620: 1998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Library Performance Indicators)이 발표되었다. 이 국제표준에서는 세계 각국의 모든 도서관에서 성과측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26개의 평가지표를 이용자만족(user satisfaction), 이용자봉사(public services, 봉사전반, 자료의 제공, 자료의 출납과 대출, 도서관 상호대차, 참고봉사와 정보검색, 도서관 설비) 및 기술봉사(technical services, 자료의 수서, 자료의 정리, 편목)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대학도서관평가와 평가인정기준의 최근 동향은 ACRL이 금년에 대학도서관기준을 개정하면서 밝힌 새로운 기준에 잘 나타나 있다. 새로운 기준은 대학평가인정기구의 최근의 관심인 효과 측정(outcome assessment)과 변화하는 교육 및 정보기술을 반영하고, 투입(input, 도서관 자원, 즉 예산, 공간, 장서, 시설 및 직원)뿐만 아니라 산출(output, 이루어진 일의 계량화 즉, 대출도서 수, 해답이 제공된 참고질문의 수 등) 및 효과(outcome, 도서관 자원과 프로그램의 이용을 결과로 이루어진 도서관 이용자의 변화)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개별 도서관의 이념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것이다.

ACRL의 기준은 봉사(services), 이용자교육(instruction), 자원(resources), 자료접근(access), 시설(facilities), 커뮤니케이션과 협력(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경영(administration), 예산(budget) 등 6부문에 대하여 양적인 기준(예, 이용자 1인당 도서수)과 질적인 기준(예,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수서 및 지속적인 장서개발과 평가과정에 있어 교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 함께 제공된다.

미국대학평가인정기준도 과거 자원 중심의 양

적인 평가에서 이용자와 효과측정 부분을 기준 항목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의 대학평가인정기준에서는 장서의 규모와 장서 구입 예산보다 장서의 질, 적합성, 접근가능성, 가용성, 자원과 서비스의 전달,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였는가가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원격교육 등 대학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격이용자봉사(remote user services)와 정보능력(information literacy)이 평가기준에 더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원의 보유보다 이용을 더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Lindaur 1998).

〈표 1〉은 서혜란(1996), 장혜란(1996), ISO(1998), 미국대학평가인정기준(1994, 1998) 및 대학도서관기준(2000)에서 포함하고 있는 도서관 평가영역을 분석하여 평가지표(indicators)가 비슷한 분야끼리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도서관 자원, 시설, 직원 관련 영역과 함께 정보봉사 및 상호협력 그리고 이용자 교육 등이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소장보다는 자료의 접근 및 이용이 강조되며, 최근에 발표된 평가기준에서는 정보기술에 관한 영역과 이용자 만족과 같은 도서관봉사의 효과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대학종합평가인정대학 도서관의 자원 변화

3.1 대학도서관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

현행 대학종합평가인정기준에서 도서관 관련

〈표 2〉 현행 대학종합평가인정기준 중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과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연도	평가척도				
		1	2	3	4	5
학생 1인당 도서수(권)	1994	40 미만	40-50	50-60	60-70	70 이상
	1995-1998	30 미만	30-40	40-50	50-60	60 이상
열람좌석당 학생수(명)	1994-1998	10 이상	8-10	6-8	4-6	4.0 미만
열람좌석중 개가식 열람석의 비율	1994-1998	20% 이상	20%-40%	40%-60%	60%-80%	80% 이상
학과당 평균 정기간행물 구독종수(종)	1994-1998	5 미만	5-10	10-15	15-20	20 이상
최근 3년간 확보된 도서의 평균단가(원) CD, 마이크로폼 포함	1994-1995	4천 미만	4천-6천	6천-8천	8천-1만	1만 이상
	1996	4.4천 미만	4.4천-6.5천	6.5천-8.6천	8.6천-10.7천	10.7천 이상
	1997-1998	4천 미만	4.9천-7천	7천-9.1천	9.1천-11천	11.2천 이상
학과당 비도서 정보자료의 종수(종)	1997	5종 미만	5-25종	25-45종	45-65종	65종 이상
	1998	매우 미흡	대체로 미흡	보통	대체로 양호	매우 양호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원)	1994	2만 미만	2만-3만	3만-4만	4만-5만	5만 이상
	1995	3.0 미만	3.0-4.0	4.0-5.0	5.0-6.0	6.0 이상
	1996	3.2 미만	3.2-4.2	4.2-5.2	5.2-6.2	6.2 이상
	1997	3.4 미만	3.4-4.4	4.4-5.4	5.4-6.4	6.4 이상
	1998	3.7 미만	3.7-4.7	4.7-5.7	5.7-6.7	6.7 이상
도서관 전산화	1994-1996		되어있지 못하다	25-45종	정도가 매우 우수	
	1997-1998	매우 미흡	대체로 미흡	보통	대체로 양호	매우 양호

자료: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대학종합평가 종합보고서』를 참고로 재구성.

항목은 시설·설비영역 중 교육지원시설 부문에 포함된다. 도서관 관련항목에 주어진 가중치는 최대 22점이며, 여기에 재정·경영 영역의 예산 편성 및 운용 부문 중 도서구입비 규모 4점을 포함해도 총 26점으로 대학평가에 있어 단지 5% 내외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도서 및 정보자료 확보의 실적 (8점)
 - 재학생 (학부 + 대학원) 1인당 도서 수
 - 확보된 도서의 질: 최근 3년간 확보된 도서의 평균단가
- 열람좌석의 확보 (4점)
 - 도서 이외의 정보자료의 확보 상황: 학과 당 비도서 정보자료(예,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CD,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시 등)의 종수
 - 열람좌석 당 재학생 (학부 + 대학원) 수
 - 개가식 열람석의 비율

- 국내·외 정기간행 정보지 및 학술지의 구독 (4점)
 - 학과 당 정기간행 정보지 및 학술지 구독 종수
- 정보처리 체제의 구축 및 운영 (6점)¹⁾
 - 도서관 전산화 정도
- 도서구입비의 규모 (4점)
 -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평가방법은 <표 2>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도서관전산화와 도서 이외의 정보자료 확보상향 두 항목을 제외하고는 주로 정량적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정량평가는 대학평가인정편람에서 제시하는 대학도서관 현황표를 이용하여 작성된 각 대학의 보고에 기초하며, 정성평가는 대학도서관의 보고서와 방문평가를 토대로 평가자가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도서관 관련 항목의 선정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대학평가인정기준안이 제시된 초기부터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망한 바 있다(김진수 1995, 백항기 1995, 서혜란 1996,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1996).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도서관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
- 2) 인적 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다.
- 3)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소홀하다.
- 4) 정보봉사 기능과 교육기능의 수준을 측정할 평가항목이 없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구입도서의 평균단가에 포함되어 산출되던 비도서자료를 1997년부터 별도항목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 이외 외에는 5점 척도의 구분기준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평가항목과 가중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도서관측의 개선에 대한 요구나 대학도서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평가항목과 척도들이 도서관평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2 대학종합평가인정대학 도서관의 자원 변화

대학평가인정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총 114개 대학이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1997년에 일괄적으로 평가를 받은 11개 교육대학과 1998년에 평가가 실시된 16개 신학대를 제외한 총 87개교 중 『한국 도서관통계』²⁾에 보고된 79개 대학도서관(90.1%)을 대상으로 1989년 이후 도서관 자원(건물, 장서, 연속간행물, 직원 및 예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대학을 평가인정받은 연도별로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평가인정대학의 도서관에 대한 평가인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가 지나면서 관련 항

1) 도서관 전산화 이외에도 전산체제 및 LAN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 및 행정을 위한 활용 정도, 인터넷 활용 실태 항목이 포함된다.

2) 1993년까지는 출판 전해 4월 1일부터 출판된 해의 3월 31일까지의 통계를 수록하나, 1995년부터는 출판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1993년 도서관 통계는 1992년 4월 1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의 기록이고 1996년 판은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이다. 1994/5년은 합본으로 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1993년 4월 1일부터 1993년 말까지의 통계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연구에서는 통계범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연도별 평가인정대학 및 도서관 분석대상

단위: 대학수

연도	국립대학		사립대학		합계	
	평가실시	분석대상	평가실시	분석대상	평가실시	분석대상
1994	6	6	1	1	7	7
1995	4	4	14	13	18	17
1996	2	2	9	8	11	10
1997	6	5	9	7	26	12
1998	5	5	31	28	52	33
합계	23	22	64	57	87	79

목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장서의 확충과 도서관 전산화의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나, 점차 개선되어 1998년에는 '도서확보의 적절성'은 "매우 양호"하고 '비도서자료'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23개 대학 중 13개 대학만이 도서관의 전산화를 우수하게 구축하고 있었고, 7개 대학은 구축 중이거나 이미 구축했다라도 불완전하였으며, 나머지 3개 대학은 향후 추진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 도서관전산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하였으나, 1996년에는 11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우수," 1997년에는 80.0%가 "매우 우수"하게, 13.3%는 "대체로 우수"하게, 6.7%는 "보통" 정도로 판정을 받았고, 1998년에는 현재 90.3%의 대학이 도서관 전산화가 "매우 양호," 나머지 9.7%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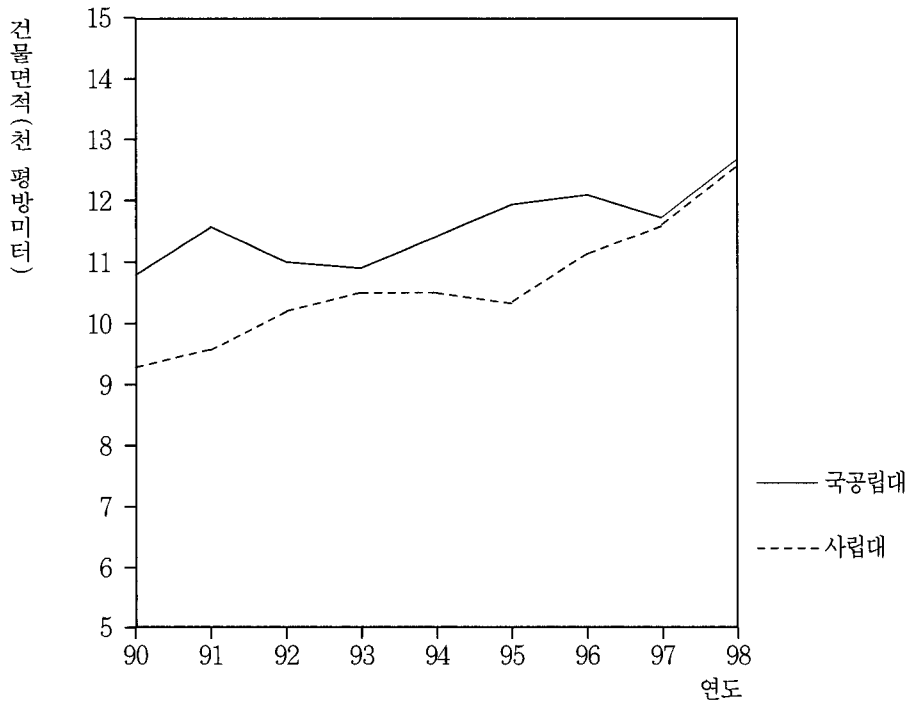
그 밖에 열람좌석의 확보와 개가식 열람석의 비율 등의 항목은 초기부터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학교가 90% 내외로 양호하였고, 1998년에는 평균 개가식 열람석의 비율은 94.55%, 평균 열람좌석당 학생수는 3.95명인 것 나타났다. '국내외 정기간행 학술지의 구독'도 초기부

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도서관통계』에 나타난 평가인정대학도서관의 자원 분석 결과도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평가와 일치한다. 이 기간 동안 시설(건물 및 열람좌석수)이 확장되었고, 장서(단행본 및 연속간행물)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된 것을 알 수 있다.

열람좌석수는 매년 완만히 증가하여 1990년 평균 1,891석에서 1994년에는 2171석, 1998년에는 2598석으로 약 37% 증가하였다. 이를 199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1990년에서 1994년까지 4년간은 평균 200석(10.6%), 이후 4년간은 427석(16.4%)의 증가를 보인다. 평균 도서관 건물면적도 1990년의 9,426 평방미터에서 1994년에는 10,331 평방미터(13.6% 증가)로, 1998년에는 12,207 평방미터(29.5% 증가)로 확장되었다. 건물확장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사립대학도서관 건물면적의 확장이다. 건물면적의 변화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살펴본 <그림 2>에서 보듯이 1995년과 1996년에 사립대학의 건물면적이 보다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열람좌석수와 도서관 면적의 증가에는 학생



〈그림 2〉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도서관 건물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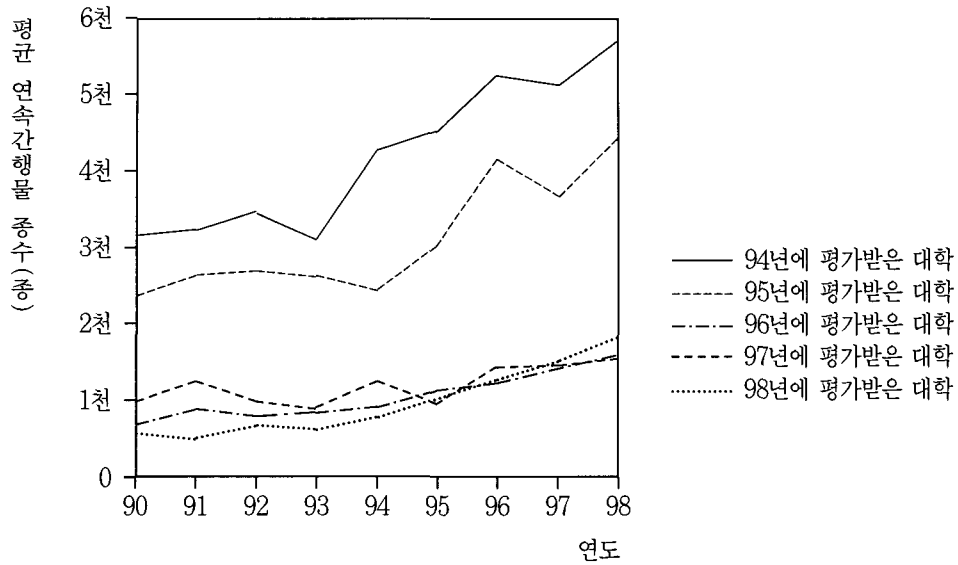
수의 증가 등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평가인정이 시작된 1994년 이후의 증가율이 그 이전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인정기준에서 명시한 장서 기준과 필요 열람석 수 및 개가제 열람석의 확보를 위하여서 많은 도서관이 건물을 확장하고 열람석을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볼 수 있다.

도서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도 1990년에서 1998년까지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1995년 이후의 증가가 이전기간 보다 크다. 〈표 4〉는 평가를 받은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단행본과 잡지로 나누어 연도별로 평균값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정리한 것이다. 단행본의 경우 1995년에 많이 증가(동양서 20.51%, 서양서 15.65%)하였고 1996년과

1997년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1998년에 다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속간행물은 1995년과 1996년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1996년에 국내 연속간행물은 43.79%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는 1995년도에 평가받은 대학에서의 지속적인 증가와 1997년에 평가를 받은 대학도서관에서의 집중적인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은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은 연도별로 대학도서관을 나누어 국내연속간행물 소장종수의 변화를 알아 본 것이다. 1997년에 평가받은 대학의 1996년의 연속간행물 소장종수는 이전까지의 낮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던 추세에서 급속한 증가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도서관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에 평



〈그림 3〉 평가인정연도별 대학도서관의 국내연속간행물 소장 변화

균 3억 7천만원에서 1999년에는 13억 3천만원으로 약 3.6배 증가되었다. 특히 1993년에서 1997년 사이에는 매년 25-40%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이 기간에 도서관전산화와 자료의 확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때문으

로 보인다. 도서관 전체예산과 자료비예산을 정리한 〈표 5〉를 보면, 자료비의 변화도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예산의 변화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다른 기간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1998년에 증가율이

〈표 4〉 연도별 평균 장서량 및 연속간행물 종수

단위: 권(종)수, %

연도	장서수		연속간행물 종수	
	동양서(증가율)	서양서(증가율)	국내 (증가율)	국외 (증가율)
1990	149,191	78,083	739	579
1991	164,903 (10.53)	83,203 (6.61)	808 (9.34)	632 (9.15)
1992	182,033 (10.39)	89,003 (6.97)	817 (1.11)	670 (6.10)
1993	190,529 (4.67)	92,363 (3.78)	710 (-13.10)	671 (0.15)
1994	224,110 (17.63)	101,425 (9.81)	807 (13.66)	692 (3.13)
1995	270,077 (20.51)	117,293 (15.65)	918 (13.75)	817 (18.06)
1996	291,010 (7.75)	129,704 (10.58)	1,320 (43.79)	942 (15.30)
1997	310,866 (6.82)	139,089 (7.24)	1,296 (-1.82)	976 (3.61)
1998	339,040 (9.06)	164,025 (18.58)	1,424 (9.88)	1,183 (21.21)

〈표 5〉 연도별 평균 자료비와 도서관 예산

단위: 천원

연도	자료비 (증가율)	전체 예산 (증가율)
1990	276,939	375,631
1991	287,285 (3.86)	432,027 (15.01)
1992	304,955 (6.15)	430,085 (-0.44)
1993	434,487 (42.47)	610,085 (41.85)
1995	661,352 (52.21) *	990,301 (62.27) *
1996	764,910 (15.60)	1,239,844 (25.20)
1997	906,333 (18.49)	1,555,794 (25.48)
1998	963,527 (6.31)	1,465,224 (-5.80)
1999	914,427 (-5.10)	1,370,133 (-6.48)

(*2년간의 증가율이다. 1994년도 예산은 도서관통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감소되었다가 1999년에는 전해보다 예산액이 오히려 줄었다. 이러한 예산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IMF의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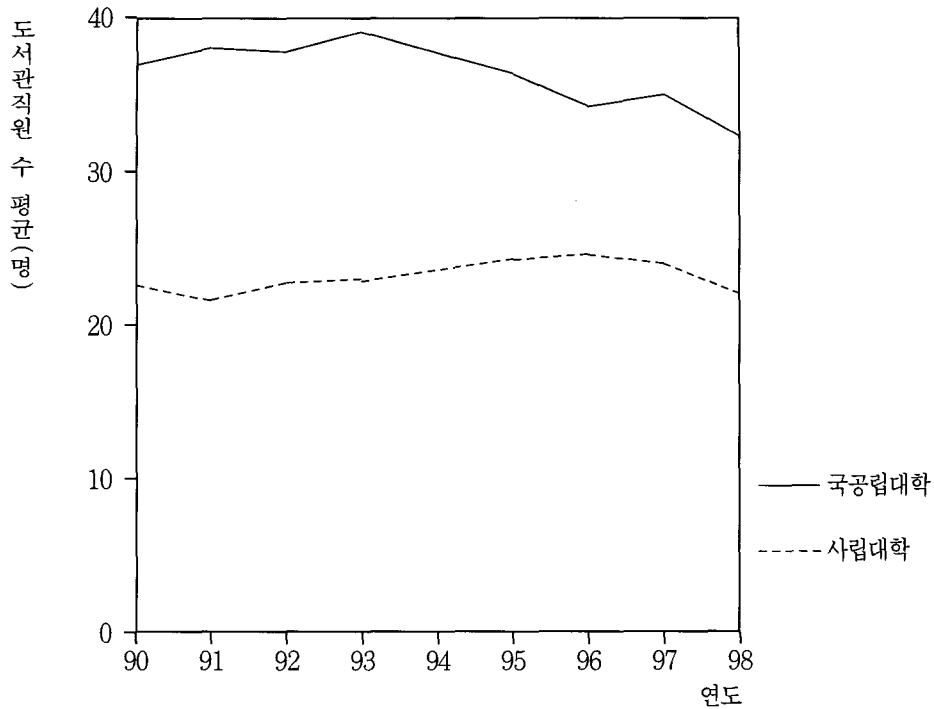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장서 및 예산의 커다란 성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관직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도서관직원수는 1990년의 평균 26명에서 1998년에는 2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직원의 감소는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에

〈표 6〉 연도별 평균 도서관 직원 수

단위: 명

연도	정사서			사서직			직원총수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1990	1	11.34	45	1	14.97	117	3	26.09	157
1991	1	12.69	55	1	15.71	98	3	25.61	142
1992	1	13.50	55	1	16.21	99	3	25.96	144
1993	1	13.81	62	1	16.37	96	1	26.16	154
1994	2	14.17	61	2	16.43	97	2	26.42	148
1995	2	14.54	59	2	16.40	92	3	26.99	131
1996	2	15.00	59	2	16.81	66	3	26.71	106
1997	2	14.38	45	2	16.87	86	3	26.56	138
1998	2	14.56	50	2	16.16	76	3	24.34	127



〈그림 4〉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도서관 직원수 변화

서, 그리고 전문직보다는 비전문직 인력 부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도서관 직원수의 변화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표시한 〈그림 4〉를 보면 사립대학의 도서관 직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국공립대학의 평균 도서관직원수는 199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6〉에서 보듯이 전문직 인력은 약간 성장하여, 사서직 직원은 평균 15명에서 16명으로, 1·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는 평균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력의 변화는 도서관이 전산화되면서 단순 기술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급격한 성장과는 대조적이다. 도서관의 제한된 예산이 대학평가인정항목에 포함된 장서

확충과 시설의 개선 및 도서관전산화에 집중적으로 배당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 결론 및 제언

대학종합평가인정 관련 자료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79개 대학도서관의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설과 열람좌석수, 도서와 연속간행물 소장량, 예산 및 직원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 몇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학종합평가가 대학도서관의 자원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도서관 평가항목에 포함된 열람좌석수, 도서와 연속간행물 소장량 및 예산은 대학종합평가가 실시된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였지만,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부문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비전문직 도서관 직원의 수는 감소하였다.

둘째, 대학종합평가인정이 시작된 초기에 지적되었던 도서관 관련 평가의 항목의 문제점은 평가 1주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대학평가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매우 적으며 평가항목도 제한된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외국의 대학도서관 평가의 경향은 자원뿐만 아니라 봉사 및 봉사의 효과를 측정하고, 양적인 측정방법과 질적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개별 도서관의 목적 및 여건을 고려한 평가가 강조된다. 평가 영역도 이용자만족, 이용자 교육, 원격봉사 및 상호협력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 대학평가인정기준은 도서관의 물리적인 자원, 그것도 열람좌석,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수 및 도서관산화 등에 제한되며, 평가방법도 대부분 단순한 수치의 비교에 의존하고 도서관의 목적이나 이용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 등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의 평가에, 적어도 관련항목의 선정을 통해서,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대학종합평가 평가준거 분석 연구』에서 평가준거가 대학총장, 교수 등 고등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하여 선정되고, 이후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충분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회 1998). 그러나 도서관평가에 도서관인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였는지는 언급되어있지 않다. 또한 도서관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

고 있다.

위의 결과는 대학평가인정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우선, 대학평가인정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 제도가 도서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항목과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봉사모형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우리의 연구는 소수(예: 한상완 외 1995, 서혜란 1996, 장혜란 1996)이며, 1997년 이후에는 찾기 힘들다. 최근 정보기술의 도입과 원격교육의 실시 등 대학교육환경의 변화와 전자정보원의 증가와 전자도서관의 보급,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통신수단의 발달 등 급변하는 대학도서관여건의 변화는 이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 봉사모형을 요구한다(Lynch 1998).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대학도서관봉사와 적절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대학평가인정제의 도서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면,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도서관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평가에 도서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평가인정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부서는 제한된 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부서와의 사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Woff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협회의 산하의 평가위원회에 아직 도서관 전문직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도서관 관련항목과 측정방법의 선정에 있어 도서관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한가지 방법으로 전문직 단체의 대학도서관기준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 지역별 대학평가인정에서의 ACRL

대학도서관기준 이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도서관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한다면 대학평가인정에서 기준항목의 선정과 탐방평가의 과정에 이를 활용할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대학도서관인은 대학의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대학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White(1999)가 경영대학인가 과정에서의 사서의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도 밝혔듯이, 사서가 대학의 자체평가과정에 참여를 권고받는 경우도 드물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도서관인들은 대학이 예산 배정 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평가인정을 도서관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인들은 평가인정과정과 인정기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학 내 여러 집단들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평가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arten 1994).

본 연구는 대학평가인정이 대학도서관에 끼친 영향을 인정을 받은 대학도서관 자원의 양적인 변화에 제한하여 알아보았다. 평가인정이 개별 도서관의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도서관 자원의 질적인 면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 자료와 시설의 성장에 따르지 못한 직원수의 제한이 도서관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나타나지는 않는지 또 대학도서관인들은 평가인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서혜란. 1996.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9-34.
- 백향기. 1995.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서관문화』, 36(3): 33-47.
- 조윤희 역. 2000. 도서관 성과지수 측정을 위한 국제표준 요지(상). 『도서관문화』, 41(1): 40-46.
- 조윤희 역. 2000. 도서관 성과지수 측정을 위한 국제표준 요지(하). 『도서관문화』, 41(2): 11-28.
- 장혜란. 1997. 대학도서관 질적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4): 165-186.
-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1996.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건의서.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 16차 세미나』, 1996년 11월 7일-8일, (총무: 마리나리조트).
- 최정태. 1994. 1994년도 대학종합자체평가에 나타난 '도서관 영역' 비교연구. 『도서관학논집』, 21: 87-11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종합평가기준』. 1994년-1999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종합평가편람』. 1994년-1999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종합평가 종합보고서』. 1994년-1999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8. 『대학종합평가 평가준거 분석 연구』. [서울]: 동협의회. 연구보고 RR 제 98-12-171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7. 『대학평가인정제 중간보고 및 그 성과와 전망』. [서울]: 동협의회. 자료 RM 98-4-164.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990-1999.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상완, 김태수, 김석영, 김성혁, 문성빈. 1995.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9: 63-137.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ited 2000.4.30]. <<http://www.ala.org/acrl/guides/college.html>>.
- Casserly, Mary F. 1986. "Academic library regional accreditatio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January): 38-47.
- Casserly, Mary F. 1987. "Accreditation-related self-study as a planned change process: factors relating to its succes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8: 85-108.
- Coleman, Paul and Ada D. Jarred. 1994. "Regional association criteria and the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the informal role of quantitative input measures for libraries in accredita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0(5/6): 273-284.
- Frazer, Stuart. 1994. "Specialized accreditation and academic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5(March): 111-147.
- Garten, Edward D. 1994. "Current regional commission standards and guidelines." in *The Challenge and Practice of Academic Accreditation: A Source Book for Library Administrators*. Edited by Edward D. Garten(Westport: Greenwood): 69-74.
- Kells, H. R. 1995. *Self-study Processes: A Guide to Self-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Phoenix, AZ: Pryn Press.
- Leach, Ronald G. 1992. "Academic library change: the role of regional accredita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8(5): 288-291
- Lindaur, Bonnie Gratch. 1998. "Defining and measuring the library's impact on campuswide outcom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9(November): 546-570.
- Lynch, Clifford A. 1998. "Recomputerizing the library: new rol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 a time of networked environment." in *Recreating the Academic Library: Breaking Virtual Ground*, Edited by Cheryl Laguardia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3-22.
- White, Gary W. 1999. "Managing the

- accreditation process: a survey of academic business librarians." *Library Management*, 20(8): 431-438.
- Williams, Delmus E. and O'Connor, Phyllis. 1994. "Academic libraries and the literature of accreditation." in *The Challenge and Practice of Academic Accreditation: A Source Book for Library Administrators*. Edited by Edward D. Garten (Westport: Greenwood): 243-270.
- Worley, Joan H. 1994. "The practical librarian's view of accreditation." in *The Challenge and Practice of Academic Accreditation: A Source Book for Library Administrators*. Edited by Edward D. Garten (Westport: Greenwood): 69-74.
- Woff, Ralph A. 1992. "Rethinking the librarian's role on accrediting team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July/August): 450-451.